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1.11.8

미 증시, 차익 매물 출회 불구 코로나 종식 기대로 상승 지속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견고한 고용지표 결과 및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발표로 상승
- 그러나 장 중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며 매물이 출회 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코로나 시대 종식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며 재차 반등에 성공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지속
- 특히 백신, 의료기기를 비롯해 코로나 관련 수혜주가 부진한 반면, 여행, 레저, 항공 등 경제 정상화 관련 종목이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는 지속
- 다우 +0.56%, 나스닥 +0.20%, S&P500 +0.37%, 러셀2000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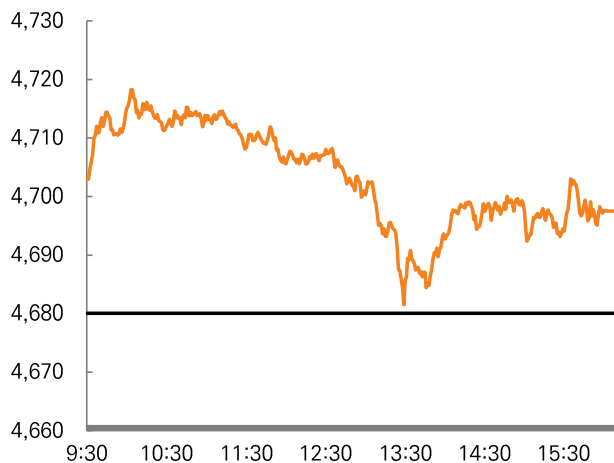
특이 종목

- 화이자(+10.86%)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발표로 급등. 경쟁사 머크(-9.86%)가 급락했으며 모더나(-16.56%), 바이오엔텍(-20.92%), 노바백스(-11.27%) 등 코로나 백신주, 에봇(-3.66%), 써머피셔(-3.59%), 다나허(-4.55%) 등 진단 업체 급락. 반면, 부킹닷컴(-7.47%) 등 여행주, 카니발(+8.35%) 등 크루즈 업종, 라스베이거스 샌즈(+7.30%) 등 리조트, 델타항공(+8.05%) 등 항공, 디즈니(-3.14%) 등 레저 업종, 마스터카드(+3.98%) 등 카드 업종, 우버(+4.24%) 등 차량 공유 업종은 강세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13%, MSCI 신흥 지수 ETF는 0.1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2.69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8%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견고한 고용보고서 및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발표로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경제 정상화 기대 심리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물론 미 증시처럼 업종 차별화는 지속될 듯
- 한편, 주말에 미 하원이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소식 또한 전반적으로 투자심리 개선 기대를 높임.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되나 화이자 여파로 업종 차별화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 이와 함께 미 의회의 인프라 법안 통과에 따른 관련 미국 시간 외 선물 추이에 따른 변화도 주목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969.27	-0.47	상해종합	3,491.57	-1.00
KOSDAQ	1,001.35	-0.01	홍콩항셍	24,870.51	-1.41
DOW	36,327.95	+0.56	베트남	1,456.51	+0.56
NASDAQ	15,971.59	+0.20	유로스톡스 50	4,363.04	+0.69
S&P 500	4,697.53	+0.37	영국	7,303.96	+0.33
캐나다	21,455.82	+0.53	독일	16,054.36	+0.15
일본	29,611.57	-0.61	프랑스	7,040.79	+0.7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미국 고용보고서 해석 ②코로나 시대 종식 기대

미국 10월 비농업 고용자수는 53.1 만 건을 기록. 주목할 부분은 8월 수치는 36.6만 건에서 48.3 만 건으로 9월 수치는 19.4만 건에서 31.2만 건으로 상향 조정된 점. 이는 미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고용시장 불확실성을 완만하게 개선 시켰다고 볼 수 있음.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 부문이 60만 4천 건을 기록했으며 그 중 서비스 부문이 지난달 30만 건에서 49.6만 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특히 레저 및 접객업 부문이 16만 4천 건을 기록해 지난달 대비 거의 두배 증가. 제조업 부문도 6 만 건 증가해 지난달 대비 두배 증가 했는데 자동차, 부품 부문이 2만 8천 건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 더불어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4% 증가해 예상과 부합 되었으나 전년 대비로는 4.9% 상승해 지난달 발표(yoy +4.6%)나 예상(yoy +4.8%)을 상회. 대체로 고용이 완만하게 확장되고 있으며, 개선 속도 또한 기대 이상.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장 시작 전 달러 강세, 국채금리 상승, 주식시장 강세 등을 기록

한편, 장 시작 전 화이자(+10.86%)가 경구용 치료제 후보 물질 파스로비드의 2상 결과를 발표. 입원 및 사망 위험이 머크(-9.86%)의 후보 물질인 몰누피라비르(약 50%)보다 크게 개선된 89%를 기록. 이에 대해 화이자는 FDA와 절충해 추가 환자 모집을 중단하고 데이터를 제출할 예정. 가격은 머크가 700달러를 제시했기에 화이자도 이 가격 수준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코로나 사태의 종료 기대 심리가 확산되며 경제 정상화 가능성을 높임. 이 영향으로 모더나(-16.56%), 바이오엔텍(-20.92%), 노바백스(-11.27%) 등 백신 관련 기업들이 급락했고 넷플릭스(-3.39%), 에봇(-3.66%), 써머피셔(-3.59%) 등 코로나 수혜주도 하락. 반면, 부킹닷컴(+7.47%), 라스베이가스샌즈(+7.30%), 카니발(+8.35%), 델타항공(+8.05%), 디즈니(+3.14%) 등 여행, 레저, 항공 업종 등 경제 정상화 관련 종목군이 급등

여기에 경제 정상화 될 경우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양호한 고용보고서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급락 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줌. 본격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시장 참여자들은 코로나 종식과 그에 따른 영향에 주목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코로나 수혜주 급락 Vs. 경제 정상화 관련주 급등

화이자(+10.86%)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발표에 힘입어 급등. 치료제 경쟁사인 머크(-9.86%)가 급락 했으며 모더나(-16.56%), 바이오엔텍(-20.92%), 노바백스(-11.27%) 등 코로나 백신주, 에봇(-3.66%), 써머피셔(-3.59%), 다나허(-4.55%) 등 코로나 진단 업체, 넷플릭스(-3.39%) 등 스트리밍 업체도 급락. 반면, 부킹닷컴(-7.47%) 등 여행주, 카니발(+8.35%) 등 크루즈 업종, 라스 베가스샌즈(+7.30%) 등 리조트, 보잉(+5.37%), 델타항공(+8.05%) 등 항공, 디즈니(-3.14%) 등 레저 업종, 마스터카드(+3.98%) 등 카드 업종,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하락하던 우버(+4.24%) 등 차량 공유 업종,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에어비앤비(+12.98%) 등 주택 공유 업종은 강세

컬컴(+4.43%)은 전일 견고한 실적에 따른 급등에 이어 오늘도 투자자의견 상향 조정 속 강세. 쉵쉵(+16.51%)은 비용 증가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매출 급증 소식에 기대 강세. 엑손모빌(+0.95%), 코노코필립스(+2.92%)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등에 기대 상승. JP모건(-0.14%), BOA(-0.76%) 등 금융주는 견고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국제금리 급락 여파로 하락. 넷시(-4.11%)는 전일 실적 기반 급등했으나, 오늘은 너무 많은 부채가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스카이웍(-4.27%)은 예상 상회한 실적 불구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부각되자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75	대형 가치주 ETF (IVE)	+0.74
에너지섹터 ETF (OIH)	+1.13	중형 가치주 ETF (IWS)	+0.75
소매업체 ETF (XLY)	+0.64	소형 가치주 ETF (IWN)	+1.89
온라인소매 ETF (EBIZ)	+1.01	대형 성장주 ETF (VUG)	+0.16
금융섹터 ETF (XLF)	+0.05	중형 성장주 ETF (IWP)	-0.21
기술섹터 ETF (XLK)	+0.52	소형 성장주 ETF (IWO)	+0.81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3	배당주 ETF (DVY)	+1.02
클라우드 ETF (CLOU)	-1.87	신중국 고배당 ETF (DEM)	+0.07
미국 리츠 ETF (VNQ)	+0.51	신중국 저변동성 ETF (EEMV)	+0.19
주택건설업체 ETF (XHB)	+0.76	미국 국채 ETF (IEF)	+0.55
바이오섹터 ETF (IBB)	-3.02	하이일드 ETF (JNK)	+0.45
헬스케어 ETF (XLV)	-1.12	물가연동채 ETF (TIP)	+0.35
곡물 ETF (DBA)	-0.5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73
반도체 ETF (SMH)	+0.78	모멘텀 ETF (MTUM)	-0.13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42.00	+1.42	+1.33	+2.92
산업재	899.52	+0.99	+1.84	+5.41
유틸리티	341.30	+0.89	+0.43	+3.69
소재	551.47	+0.84	+3.19	+8.22
경기소비재	1,664.89	+0.75	+4.99	+14.71
커뮤니케이션	279.05	+0.75	+1.42	+2.42
필수소비재	759.16	+0.55	+2.44	+4.51
IT	2,931.66	+0.43	+3.34	+9.86
부동산	301.26	+0.23	+0.81	+8.04
금융	664.86	+0.07	-0.63	+2.46
헬스케어	1,548.87	-1.03	-0.67	+4.6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 출발 후 종목 차별화 진행

MSCI 한국 지수 ETF는 0.13%, MSCI 신흥 지수 ETF는 0.1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182.69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8%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으나 기관 중심의 수급 여파로 하락. 외국인 이 운수장비 업종 중심으로 1,167억 순매수 했으나 선물 순매도에 따른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한 것. 특히 은행, 철강, 건설, 금융 등이 낙폭이 컸음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견고한 고용보고서 및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발표로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경제 정상화 기대 심리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물론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여파로 백신 및 진단 업체 중심으로 매물 출회는 불가피 하나 경제 정상화에 따른 여행, 레저, 항공 등 개별 기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다만, 미 증시의 특징처럼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 일부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은 부진 예상되는 등 차별화는 지속될 듯

한편, 주말에 미 하원이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소식 또한 전반적으로 투자심리 개선 기대를 높임. 미국의 하원은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가결.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인프라투자 법안을 찬성하는 대신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사회지출 법안에 찬성하는 협상이 타결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실제 중도 성향 의원들은 11월 15일까지 사회 지출 법안 지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재정정책 확대 또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 효과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되나 화이자 여파로 업종 차별화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 이와 함께 미 의회의 인프라 법안 통과에 따른 관련 미국 시간 외 선물 추이에 따른 변화도 주목. 이 영향으로 채권과 외환 시장의 변화 또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 보고서 개선

미국 10월 비농업 고용자수는 지난달 수치가 기존의 19만 4천 건에서 31만 2천 건으로 상향된 가운데 예상(45만 건)을 상회한 53.1만 건을 기록. 실업률은 4.8%에서 4.6%로 개선되었으나, 고용 참여율은 61.6%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해 예상(61.8%)을 하회.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4% 증가해 예상과 부합 되었으나 전년 대비로는 4.9% 상승해 지난달 발표(yoy +4.6%)나 예상(yoy +4.8%)을 상회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채 금리 급락 Vs. 국제유가, 철근 금등

국제유가는 전일 OPEC+ 장관급 회담에서 하루 40만 배럴 감산 규모 축소를 발표하자 상승 했는데 오늘도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에 기대 상승 폭 확대. 특히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발표로 여행 증가 등 수요 확대 기대 심리도 긍정적인 영향. 더불어 미국 고용개선 또한 수요 증가 기대 심리를 더욱 강화 시켜 3.1% 급등

달러화는 견고한 고용지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소폭 약세. 이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발표로 코로나 시대가 종료 되어가고 있다는 기대 심리가 부각되자 코로나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결국 달러화는 고용지표 개선과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의 충돌로 변화를 보인 가운데 소폭 약세로 마감한 것으로 추정.

국채금리는 견고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급락. 전일 매파적일 것이라는 BOE가 비둘기파적인 통화정책 결과를 내놓자 금리가 급락한 데 이어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 한 것.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견고한 결과를 내놓자 잠시 상승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로 코로나 시대가 종식될 수 있으며 팬데믹으로 높은 인플레이가 유지되고 있다는 연준의 분석을 감안 향후 인플레이 둔화 기대 심리가 높아진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

금은 견고한 고용지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급락 영향으로 1.3%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제 정상화 기대와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혼조세로 마감. 곡물은 대부분 하락. 대두와 밀의 경우 경작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부각되자 하락 했으며, 옥수수에는 경작지 감소 전망 불구 수확 확대 소식에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58% 철근은 4.38% 급등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1.27	+3.12	-2.75	Dollar Index	94.320	-0.03	+0.21
브렌트유	82.74	+2.73	-1.17	EUR/USD	1.1567	+0.11	+0.08
천연가스	5.52	-3.50	+1.66	USD/JPY	113.41	-0.31	-0.47
금	1,816.80	+1.30	+1.84	GBP/USD	1.3498	-0.01	-1.34
은	24.16	+1.03	+0.87	USD/CHF	0.9127	0.00	-0.37
알루미늄	2,556.50	+0.08	-5.89	AUD/USD	0.7400	-0.01	-1.57
전기동	9,518.00	+0.84	+0.23	USD/CAD	1.2457	+0.01	+0.56
아연	3,228.50	-0.37	-4.44	RUB/USD	0.0140	+0.07	-0.57
옥수수	553.00	-1.12	-2.68	USD/BRL	5.5423	-1.09	-1.83
밀	766.50	-0.94	-0.81	USD/CNH	6.3944	-0.05	-0.16
대두	1,205.50	-1.41	-3.52	USD/KRW	1,185.20	+0.22	+1.42
커피	206.40	-2.39	-0.12	USD/KRW NDF1M	1,182.69	-0.37	+0.6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451	-7.49	-10.08	스페인	0.399	-6.00	-20.90
한국	2.350	-6.50	-21.30	포르투갈	0.306	-4.00	-21.10
일본	0.060	-1.30	-3.90	그리스	1.070	-3.20	-24.10
독일	-0.280	-5.60	-17.40	이탈리아	0.875	-5.70	-29.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